

## 고유가 흥悲...SUV 지고 CUV 뜬다

"미니벤과 세단을 접목한 'CUV(Crossover Utility Vehicle)'가 뜬다."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SUV'의 인기가 주춤해지면서 'CUV'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CUV'는 세단의 승차감과 파워풀한 'SUV'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차량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CUV'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차고가 승용차보다 높아 시야 확보에 유리하면서도 'SUV'에 비해 차체가 작아 연비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CUV'는 또 휘발유는 물론, 디젤, LPG 등 다양한 모델로 시판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산차 업계와 수입차 업계가 내놓을 'CUV'는 20여종에 달한다.

국내시장에서는 혼다, 닛산, 푸조 등 수입차가 먼저 도전을 내밀었지만 기아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업체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국내 업체 가운데서는 기아차가 하반기에 '쏘울'(Soul) 3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쏘울'은 소형 CUV를 표방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설계됐다.

국산차 최초로 독특한 박스형 디자인이 도입됐으며, 2006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첫선을 보였다. 또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세 가지 테마의 콘셉트카 모델을 공개해 세계 자동차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쏘울'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오는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며, 매년 10만대씩 생산된다.

스포츠 버전인 '쏘울 서치'는 과감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풍긴다. 광폭 타이어나 공격적인 LED 형태의 전조등을 채택해 강한 개성을 원하는 운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킨다는 평가다.

아웃도어 버전인 '쏘울 서치'는 역동적인 볼륨감이 느껴지는 외관을 채택했고, 개폐 가능한 전면 루프를 통해 자연광과 바람을 즐길 수 있다.

페미닌 버전인 '쏘울 디바'는 여성 운전자를 겨냥한 모델로, 스타일리시함과 우아함을 강조했다. 인테리어도 골드와 검정 가죽을 사용해 감성을 자극한다.

LPG 모델인 '카렌스'도 인기 상승가를 달리고 있다. 기



미니벤과 세단 접목 CUV, 연비 절감·시야 확보 유리

기아차 소형 CUV '쏘울' 9월께 출시 수입차와 전면전

름값 급등과 경유값 가격역전 현상 등의 반사이익을 보는 대표 차종이다. 실제 '뉴카렌스'는 지난 5월에만 3천492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또 최근 출시된 2009년형 뉴페이스 '카렌스'는 내·외장 색상을 업그레이드했으며, 2.0 VGT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등 상품성을 크게 높였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말 전략 차종으로 'QM5'를 출시하면서 국내시장에 CUV 마케팅을 부각시켰다.

출시 첫 달 2천518대가 팔리나간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블레오스'란 브랜드로 수출되면서 매달 5천대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자동차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이 지난해 판매에서 선전한 것도 'QM5'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쏘울 서치 내부 인테리어>



<기아차 '쏘울 서치'>

### CUV와 SUV는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말 그대로 두 영역을 넘나드는 차량이다. SUV의 주행성이나 공간활용도는 유지하면서 세단의 안락한 승차감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기아차 '쏘울'이 전형적인 모델로 꼽힌다.

▲SUV(Sports Utility Vehicle)=스포츠·레저용 차량으로 4륜구동 지프형 차량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지상고가 높고, 프레임구조의 튼튼한 차체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싼타페와 쏘렌토 등이 대표적인 차종이다.

## 볼보 XC70·푸조 207SW·폭스바겐 티구안 등 수입차도 CUV 시장 공략 박차

수입차업계도 CUV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볼보는 최근 프리미엄 CUV인 '올뉴 XC70 D5'를 선보였다. 이 모델은 3세대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세단인 '올뉴 S80'에 탑재된 최고급 시스템을 장착했다. 볼보는 차세대 모델 'XC60'을 내년 초 한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푸조가 '207SW'를 출시한 것도 CUV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 차량은 전장을 덮은 1.1㎡의 대형 글라스 루프가 일품이다. 1,600cc 신행 기술인 엔진의 연비는 12.4km에 달한다.

포드코리아는 경제성과 스포츠카의 다이내믹한 성능을 갖춘 유럽산 'S-MAX'를 조만간 들여올 계획이다.

한국닛산도 기존 SUV인 인피니티 'FX35' 보다 차체 크기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인 CUV 뉴 인피니티 'EX35'를 지난 1월 출시했다. 콤팩트 CUV인 '로그(Rogue)'도 하반기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

폭스바겐은 하반기에 '티구안'을 출시한다.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출시된 이후 3주 만에 유럽에서만 4만2천300명의 선주문을 받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혼다도 CUV 판매 호조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혼다의 CUV인 'CR-V'는 가격 대비 품질경쟁력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3천885대나 팔려나갔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편의장치 거 큰 인기를 끌면서 수입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볼보 '올 뉴 XC70 D5'>



<푸조 '207SW'>

**제7회 1급 사회복지사**  
**여름방학특강**  
 김형준 교수 특별초빙  
 (08년 6월 27일 ~ 09년 1월 31일)  
**6회 대비 모의고사 적응률 1위!!!**

이공기문예에서 취득이율 1위인 김형준 교수님을 초빙하여 1급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5단계 (2008년 10월 18일)**  
 1.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시험 2.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4. 사회복지사 1급 시험 5. 사회복지사 1급 시험

1단계: 6월 27일 (토) 19:00~21:00  
 2단계: 7월 12일 (토) 19:00~21:00  
 3단계: 8월 16일 (토) 19:00~21:00

www.dangbugos.com | 광주 등부고시학원 062) 251-4000

**자연 愛 !! 살고싶다**  
**오랜이다림의 행복!!**  
 '담양수북'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11월 15일 개업

시합 : (주) 동북스틸빌딩  
 시공 : (주) 자연주택개발  
 www.njverstate.com  
 062) 251-4000 | 061) 383-2346

- 풍부한 휴식 공간
- 힐링, 힐링, 힐링 (10-15분 휴식)
- 친환경, 청, 청, 청, 청 (100% 친환경)
- 부지대 리빙, 부지대 리빙, 부지대 리빙
- 힐링부동산, 힐링부동산 힐
- 건강유지, 힐링유지
- 100%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 힐링부동산, 힐링부동산 힐
- 힐링부동산, 힐링부동산 힐